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태국

Kingdom of Thailand

2019년 6월 17일 | 조사역(G3) 김예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국가개황

국가신용도평가리포트

태국
Kingdom of Thailand

일반개황

면적 513천 km ²	인구 6,779만 명 (2018기준)	정치체제 입헌군주하의 내각책임제	대외정책 친서방 중립노선
GDP 4,872.39억 달러 (2018)	1인당GDP 7,187.19달러 (2018)	통화단위 Baht(Bt)	환율(US기준) 32.31 (2018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태국은 북서쪽으로 미얀마, 북동쪽으로 라오스, 동쪽으로 캄보디아, 남쪽으로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ASEAN 국가 중 인구 4위, GDP 규모 2위인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신흥경제국으로 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여 세계적인 관광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으나, 3월 총선에서 민주계가 집권에 실패하여 군부 정치가 계속되고 있음.
- 지속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및 안정적 소비자물가를 유지하는 등 거시경제제표가 안정된 반면, 상대적 고임금과 과도한 수출의존형 경제는 국가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함.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8. 10. 1 수교 (북한과는 1975. 5. 8)
주요협정 무역협정('61), 항공협정('68), 이종과세방지협정('77), 과학기술협력협정('85), 투자보장협정('89), 범죄인인도조약('01), 해상운송협정('02), 문화교육협정('04), 수형자이송조약('12), 사법공조조약('15)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6,481,531	7,467,041	8,504,994	전자·전기 제품, 철강, 석유화학제품
수 입	4,562,808	5,204,674	5,582,443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18년 말 누계, 총투자금액 기준) 1,086건, 2,635백만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1.0	3.1	3.4	4.0	4.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0.9	0.2	0.7	1.1
재정수지/GDP	-0.8	0.1	0.6	-0.9	-0.3

자료: IMF, EIU

2018년 세계경기 회복과 민간소비 활성화로 4.1%의 경제성장

- 태국 경제는 2013년 11월 이후 지속된 반정부 시위와 2014년 5월 발생한 군부 쿠데타에 따른 정정 불안으로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2014년 1.0%의 저성장애 그쳤음.
- 이후 세계경기 회복, 최저임금 상승, 정부 주도의 인프라 사업 등으로 점차 성장동력을 회복하여 2018년 4.1%의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19년 들어 수출 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1분기 성장률이 최근 4년래 가장 저조한 2.8%를 기록하였으며, 태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3.5~4.5%에서 3.3~3.8%로 하향 조정함.

재정수지 적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지출증가 요소 존재

- 2018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3%의 적자를 기록, 주변국들에 비해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18년 재정수지/GDP : 인도네시아 -1.8%, 캄보디아 -2.0%, 말레이시아 -3.6%, 베트남 -4.6%
- 다만, 향후 인구 노화 및 인프라 투자로 인한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될 소지가 존재함에 따라 현 군사정부는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각종 세제 정비를 시행 중임.
- 2016년 2월 최초로 상속세법이 발효되었고, 2017년 9월 주류, 담배, 음료수 및 자동차에 적용되는 소비세법이 발효되었음. 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를 인상(7% → 10%)을 검토 중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범위 내를 유지

- 2016년에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2%에 그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7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0.7%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8년 이후에는 국내수요 활성화로 1.1%를 기록하여 점차 상승 중이나,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1~4% 이내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태국은 자연재해에 따른 식료품의 가격 변동, 원자재 국제가격 등이 물가에 큰 영향을 끼침.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상수지	15,224	32,113	48,208	50,211	37,327
경상수지/GDP	3.7	8.0	11.7	11.0	7.7
상품수지	17,201	26,798	36,539	34,161	23,719
상품수출	226,624	214,046	214,251	235,267	253,523
상품수입	209,422	187,248	177,711	201,107	229,804
외환보유액	149,064	149,291	164,148	194,048	197,031
총외채	140,128	131,078	132,194	150,503	164,403
총외채잔액/GDP	34.4	32.7	32.1	33.1	33.7
D.S.R.	4.8	6.2	5.7	5.5	5.8

자료: IMF, EIU

경상수지 흑자로 풍부한 외환보유고 보유

- 태국의 상품수출은 중간 부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조립 생산,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중심을 이루며, 자동차, 가전제품, 데이터 저장장치(HDD) 등이 주력 수출품목임.
- 태국은 세계 2위의 에어컨 및 데이터 저장장치 수출국이자 일본 자동차 기업의 주요 생산거점임.
- 태국은 지난 30년 동안 쌀 수출 규모 세계 1~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고무, 타피오카, 설탕과 냉동식품 및 통조림 등 가공식품의 수출도 활발함.
- 2016~17년에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서비스 수지와 제조업 수출 확대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GDP 대비 각각 11.7% 및 11.0%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입액 증가로 동 비중이 7.7%로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 및 달러당 바트화 환율 하락에 따른 해외자금 유입으로 외환보유액이 누적되어 견고한 외환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음.
※ 2018년 말 기준 외환보유액 규모는 1,970억 달러로 세계 10위

달러당 바트화 환율 하락세 지속

- 달러당 바트화 환율은 2016년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 서거 등으로 급등하면서 연평균 35.3바트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2017~18년에는 달러화 약세 흐름에 따라 하락세가 지속되었음.
※ 환율 추이(연평균, 대미환율) : 32.48('14) → 34.25('15) → 35.30('16) → 33.94('17) → 32.31('18)

외채상환능력

총외채규모 지속적 감소 및 대외지급능력 양호

- 태국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1990년도 90%대 수준에서 2018년 33.7%까지 감소하였음.
-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은 단기외채잔액 감소 및 외환보유액 증가로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D.S.R.도 5.8%를 기록하는 등 대외 지급능력이 건전한 편임.
※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추이(%) : 37.9('14) → 34.3('15) → 32.2('16) → 33.2('17) → 32.7('18)

구조적취약성

높은 대외경제 의존도로 대외 변동성에 취약

- 태국은 ASEAN 회원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수출규모 2위인 수출주도형 국가로, 2018년 중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이 71%에 달하여 대외 경기변동에 취약함.
- 또한 자동차, 전자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글로벌 기업의 생산전략 변화 등에 큰 영향을 받음.
- 최대 수출수입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최근 미-중 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액이 총수출의 각각 12% 및 11%를 차지함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태국 경제에 상당한 수준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반면, 미국의 대 중국 관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 내 투자자들이 태국으로 생산거점을 이동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존재함.

인구 고령화 및 포플리즘 정책에 따른 지속적 임금 인상이 성장 저해 요소

- 태국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이 경제성장의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미얀마등 인근 국가들로부터의 노동력 유입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임금 관련 포플리즘 정책의 시행으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잉락 친나왓 전 총리의 총선 공약 이행으로 2013년 171~221바트 수준의 일일 최저임금을 300바트로 인상하였으며, 2018년 4월에는 5년 만에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하여 1일당 325바트로 상승함.
- 노동력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인상은 민간투자 위축과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져 노동집약적 산업이 인근 동남아 국가로 이전하는 요인이 됨. 또한, 고등교육 체계의 미비로 고급 인력이 부족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을 대체할 고수익형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이 어려운 실정임.

성장잠재력

외국인투자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

- 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타 ASEAN 국가들에 비해 외국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경영여건 평가(Doing Business 2019)에서 태국은 190개국 중 27위*로, 원활한 전력 공급, 편리한 납세 시스템, 주변국과의 무역을 위한 제도를 잘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음.
 - * 동남아 주요국 기업경영여건 순위 : 말레이시아(15위), 인도네시아(73위), 필리핀(124위)
- World Economic Forum이 발표한 2018년 글로벌경쟁력 지수에서 태국은 140개국 중 38위를 기록했으며, 금융 시스템(14위), 시장규모(18위), 시장 역동성(23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함.

관광 산업에 적합한 기후와 문화를 바탕으로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

- 태국은 열대성 기후의 연중 휴양지로 청정해안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어 아시아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하고 있음. 태국의 관광 산업은 국가경제의 약 10%를 차지하며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버팀목이 되고 있음.
- 2000년 이후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해 2014년에는 전년 대비 6.5% 감소하였음. 이후 2015~17년에는 관광객 수가 각각 20.6%, 8.7%, 9.4%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 태국을 방문한 관광객 수(만 명) : 2,481('14) → 2,992('15) → 3,253('16) → 3,556('17)
- 2018년 7월 푸켓 여객선 전복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33명이 사망한 후 중국인 관광객 수는 감소함.
- 태국 정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20개국 앞 도착 비자(visa-on-arrival) 요금 면제를 시행함.

정책성과

“태국 4.0” 및 국가경제사회 개발계획 추진 중

- 태국 정부는 “태국 4.0”(Thailand 4.0) 계획 추진을 통해 2036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첨단기술 부재, R&D 투자 부진, 숙련 노동자 부족 및 지속적인 임금 상승으로 인한 제조업 경쟁력 상실을 성장 둔화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로봇·의학·항공·바이오연료 등 10개 분야를 혁신 산업으로 규정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음.
- 또한 제조업 기반 경제를 고부가가치 경제로 다변화하기 위해 제12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2017-21)을 도입하였음.

동부경제회랑(EEC) 개발 계획 추진

- 태국 정부는 2017년 동부경제회랑(EEC: East Economic Corridor)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2021년까지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13,285km²에 해당하는 동부 해안 지역을 현재의 제조업 단지에서 최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임.
- 태국 정부는 동부경제회랑 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며, 태국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 개요>

구 분	내 용
기 간	2017~21년
총 예산규모	1.5조 바트(약 430억 달러)
목 적	태국 동부 해안 지역을 최첨단 산업단지로 변모
주요 내용	차츄사오 주, 촌부리 주, 라용 주의 3개 지역에 최신 인프라를 정비하고, 여기에 차세대 자동차, 스마트 전자, 관광, 바이오테크, 음식, 로봇, 항공, 바이오연료, 디지털, 의료 등 10대 첨단산업을 육성
승인 프로젝트	우타파오 국제공항 리모델링, 국제공항철도 개발, 램차방 항구 정비 등
규제완화	- PPP(민관합작투자사업) 인허가 절차 기간: 8~10개월로 단축 (기존 24개월) - 법인세 면제기간: 15년으로 연장(통상 8년) - 토지 임대기간: 최장 99년까지 인정 - 원자재와 기계 등 수입품에 무관세 - 국가경쟁력기금 설치하여 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 타	동 개발계획을 헌법이 규정한 '20년 국가전략'에 포함시키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EEC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총리가 직접 맡음

<동부경제회랑(EEC) 개발계획 지도>

Thailand's Eastern Economic Corridor



정치동향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군부 쿠데타로 과도정부 구성

- 2014년 5월 22일 태국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경찰과 군부로 구성된 국가평화질서위원회(NCPO)*를 발족한 뒤 국왕의 승인을 받아 2014년 9월 프라웃 찬오차(Prayuth Chanocha) 총리를 필두로 한 과도 정부를 출범하고,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를 통제함.
- * NCPO : National Committee for Peace and Order
-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2016년 8월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고, 동 헌법은 2017년 4월 발효되었음.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해 민정이양 계획을 밝혔음.

3월 총선 결과 군부 집권 유지

- 2019. 3. 24일 총선 결과, 민주계열인 푸어타이당(Pheu Thai Party)과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이 연립정부를 구성할 경우에도 총리직 선점을 위한 최소 의석수에 미달함에 따라 군부계인 팔랑쁘라차랏당(Phak Phalang Pracharat Party)이 재집권에 성공*하여 2023년까지 군부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019 총선 결과>

정 당	의석 수(하원의원)
푸어타이당	136석
팔랑쁘라차랏당	115석
퓨처포워드당	80석

* 의회는 상원의원(250명) 및 하원의원(500명)으로 구성

- * 상원의원은 군부가 전원 지명하기 때문에 군부당에 우호적
- 한편, 군부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도록 하는 헌법을 도입하여 민주계가 다수당을 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있음.
- 프라웃 찬오차 총리는 상하원 합동투표에서 차기 총리로 선출되어 11일부터 제 29대 총리 임기를 시작함.
- * 하원의원 500명 중 350명은 직접투표로, 150명은 비례대표 제도로 선출
- 2019. 6월, 추안 릭파이 하원의원장이 헌법재판소 앞 친군부 의원 41명에 대한 '언론사 지분보유 금지' 의무 위반 여부조사를 신청함. 현재가 41명 전원 앞 의원직 상실·정직 판결을 내릴 경우, 군부는 의석수 미달로 법안 및 예산안 자체통과가 불가능해짐.

사회동향

총선 이후 민주주의 쇠퇴에 대한 우려 확산

- 2019. 3월 총선 이후, 군부가 민주주의의 핵심제도인 선거를 통해 재집권하면서 쿠데타 정권이라는 비판을 일부 모면하게 되었으나, 여전히 선거절차의 투명성과 총선 전 군부가 헌법을 일부 수정한 사실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푸미돈 아둔야뎃 국왕 서거, 와치탈롱콘 국왕 즉위

- 2016년 10월 서거한 푸미돈 아둔야뎃(Bhumibol Adulyadej) 국왕은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며 60년이 넘는 재위기간 동안 쿠데타 등 태국의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음. 이후 2016년 12월 아들인 마하 와치탈롱콘(Maha Vajiralongkorn)이 신임 국왕으로 즉위하였음.
- 2019. 5월, 와치탈롱콘 국왕은 근위대장 출신인 आयु타야 왕비와 결혼식을 올리고, 아둔야뎃 왕에 대한 애도기간으로 연기되었던 국왕 대관식을 진행함.

국제관계

인접국과의 관계 강화

- 태국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 평화, 안보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AFTA: ASEAN Free Trade Area) 창설에 참여하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적극 도모함.
- 또한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과 2015년 12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출범하였으며, 상품 관세 철폐, 투자 규제 철폐,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 회원국 간 경제정책의 조정을 통한 지역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확대 추진

- 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양자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무역 확대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특히, 탁신 정부 이후 소규모 경제권 위주의 FTA 추진에서 탈피하여 대규모 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중임.
- 인도, 호주, 뉴질랜드, 페루, 일본, 칠레와 양자간 FTA 협정을 기 체결했으며, 태국이 속한 ASEAN은 중국, 한국, 홍콩 등과 다자간 FTA 협상을 기 체결하였음.
- 또한, ASEAN은 한·중·일 3개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와 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해 협상 중임.
-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외채상환태도

외채관리능력 양호

- 2018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의 금융지원액은 81.2억 달러(단기 48.1억 달러, 중장기 33.1억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없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행	B2 (2018.06)	B2 (2017.06)
OECD	3등급(2019.02)	3등급(2017.06)
Moody's	Baa1(2017.07)	Baa1(2014.06)
Fitch	BBB+(2018.12)	BBB+(2017.06)

OECD,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기존 등급 유지

- OECD와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태국에 대해 군부 통치로 인한 정치 불안 지속에도 불구하고 대외신인도 제고 및 양호한 외채상환능력 등을 반영하여 기존 등급을 유지함.

- 태국은 세계경제 회복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활성화에 힘입어 2018년 4.1%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였으며,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내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1.1%)을 관리 중임.
-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자동차·전자기기 제조업 생산 허브이자 관광대국으로 안정적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정부는 각종 세제 개혁을 통해 세수를 늘리고 있음.
- 2014년 반정부 시위에 뒤이은 쿠데타로 과도정부를 구성한 군부는 헌법 개정 후 총선 실시를 통한 민정 이양을 계획했으나, 2019년 3월 총선 결과 민주계가 집권을 위한 의석 수 확보에 실패하여 군부 정치가 유지됨.
- 대외적으로는 ASEAN 및 아세안자유무역협정의 중심 국가이며, 양자 및 다자간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무역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외채상환과 정부의 신중한 외채관리정책에 힘입어 GDP 대비 외채규모가 2018년 33.7%까지 감소하였으며, 외환보유고 누적 등으로 대외지급능력이 건전함을 고려해 태국에 대해 기존 등급과 동일한 B2를 부여코자 함.

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 비교

※ 각 국 평가일 기준 확인 수치로 최신 수치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경제성장률 (%)		4.1	5.1	7.0	6.5
경상수지/GDP(%)		7.7	-3.1	-10.0	-1.5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액(개월)		7.5	5.2	6.6	6.0
총외채잔액/GDP(%)		33.7	36.8	49.3	22.2
단기외채잔액/외환보유액(%)		32.7	43.8	23.4	21.1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수은	B2	C1	D1	C1
	OECD	3	3	6	3
	Moody's	Baa1	Baa2	B2	Baa2
	Fitch	BBB+	BBB	-	BBB